

## “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았어야! ”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틴 루터 킹의 날’ 은 오늘날 미국의 공휴일로 전 국민들이 그의 1963. 3. 8에 워싱턴D.C Memorial공원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연설을 가슴깊이 되새기는 인권기념일로 지킨다.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령에 서명한지 100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흑인 분리정책의 족쇄를 풀기 위해 활동하던 그가 ‘버밍엄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는 신앙과 공적철학이 분리할 수 없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에 대한 20세기 미국 정치사에 가장 중요한 정치 교과서요 깊이 있는 영적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보호를 불러일으킬 뿐아니라, 교회와 회당에서 영적 갱신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강한 호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종교와 정치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킹 목사에 대한 주목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킹 목사의 서신에서 그는 먼저 주전 700년부터 800년 사이에 살던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인용한다. 그리고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악을 폭로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 인권이 짓밟히고 있으니 하나님의 증 예언자는 ‘잔인한 행동’ ‘인신매매’ ‘종교의 죄’ ‘강포의 죄’ ‘무자비한 죄’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백성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인권 유린의 죄’ 는 하나님에 대한 탄압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므로 큰 죄가 된다고 역설했다. ‘율법을 무시한 죄’ ‘우상에 미혹된 죄’ ‘도덕성의 부패’ ‘경제적 이기심’ ‘박해받는 이의 정당성을 부인한 죄’ ‘부도덕한 죄’ 에 대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심판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한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이방나라를 때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때리신다.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데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제물까지도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 하신다. ‘바산의 암소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 몸만 살찌우는 자가 되었노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지인 벰엘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죄가 행해졌고 도덕적 부패와 위선죄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가 있다면서 지금이 위기라 한다. 타락한 종교인, 부패한 정치인,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평과 평화를 깨친 자들이 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 한다.

근세사에서 네덜란드의 A.Kuyper(1837-1920)는 칭송받는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 개혁가며 정치가, 교육가, 언론인, 예술인으로 비전을 가진 논리학이자 실천자로서 감성, 지성, 영성 뿐 아니라 의지력, 호소력, 리더십을 함께 갖춘 걸출한 인물이었다. 특히 기독교 정치가로서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무신론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국립대학에 대항하여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 칼빈사상의 기초 위에 화란자유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로 총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대학을 개교하면서 영역자주권(Souveriniteit in eigen King)사상을 제창하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특히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그 영역이 각기 다르지만 그러면서도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해 준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의 본을 보여준 이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로서 정치, 사회, 교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자기 선자리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다른 영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의무요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상대적인 이데올로기화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데올로기를 종교화하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인으로서 종교인이 정치인을 향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마치 자기가 절대 주권을 가진 책임자인양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명령하는 식의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는 태도보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질책을 한 것이므로 최근 기독교연합기관 대표회장 명의의 성명서는 지지계층도 있었으나 공인이며 종교인으로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불신사회에 덕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647호] 2019년 6월 29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Mrs. Lumie Hw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Cor 7:17-24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Rev. Euichang Kim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In the Situation God Called to" ..... Rev. Euichang Kim
* Hymn .....	488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b>부 목사 서명철</b>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b>선교사</b> 전광해(사야사), 이은준(김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물(박병진)김보미(아), 전호진(미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 카르), 김용진(황경애)말리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핀, 프르산토, 수레시, 수반석, 이경연, 일로롱, 비사우(뽀뽀, 보디소프, 린롱, 수린존(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철(근교)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내게 감사 할 이유 있네! ”

■ 눅 17:11~18  
 감사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해 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을 잘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성도는 직분을 받음에 감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고,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같이 우리가 감사할 것은 생각에 따라서 차고 넘칩니다.

1.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본문은 열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병 환자 열 명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멀리 서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멀리 서있었지만 십자가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와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2. 사람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나눠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가장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교회를 섬기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때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서있는 나병환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하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12-14절)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간청을 들으시면서 치유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함께 하심과 세워주심, 나눠주심을 보여주시며 확실한 증거를 제사장에게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3. 오직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신념이 신앙이 되어 나타난다면 교회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고와 통념은 결코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념을 신앙으로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10명중 9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지만 단 한 명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격경과 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빠른 역경을 겪어야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기쁨과 은혜만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주신다" 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상처와 위기 가운데서 회복된 감동과 감사함과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므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게 되자 감격함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로는 불평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따랐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해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원하옵기는 서울교회 성도들은 서울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대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말과 생각과 습관까지 바꿈으로 참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축복의 공공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인주훈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34:1-2 ..... 인 도 자

찬 송 ..... 171 ..... 다 함 께

기 도 ..... 이준호 집사

성 경 ..... 막 6:7-1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전파하고 쫓아내며 고치라" ... 설 교 자

\* 찬 송 ..... 441(498)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선혜영 권사

성 경 ..... 빌 2:12-1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 설 교 자

찬 송 Hymn ..... 588(307)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이종윤 목사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현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흔은 어디 있느냐(눅 17:17)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 교회소식

### ◆ 모임

1. 정기당회 / 10일(수) 수요일예배 후 104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고성의로 선교로 인해 상담이 없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맥추감사절 / 7월 첫주(7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찬예식에서 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5.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주훈 목사(서울장신대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52명	245명	188명	1,285명	122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6/3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30일	헌 금	43,932,100	
	찬양운영비		7,040,000
	교회학교운영비		1,417,000
	경 조 비		460,000
	전 도 비		6,633,100
	출 판 비		390,000
	복리후생비		56,000
	통 신 비		1,373,290
	수도광열비		7,970
	차량유지비		176,500
	도서인쇄비		525,000
	소모품비		143,060
	환경유지비		141,600
	식당운영비		1,468,150
	합 계	43,932,100	19,831,670



## 2019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강 사
영아부	7/13(토)	서울교회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 3:2)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I am a Christian (신 6:18-19)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23:3)	최승원 전도사
청년1부				
청년2부				
영어예배부	7/20(토)	베델하우스	One Body of Christ (1 Cor 7:18-27)	김의창 목사
에바다부	8/15(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시 121:1-2)	서명철 목사